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이 19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2024-2025 EPL 22라운드 에버턴과 원정 경기에서 낙담한 표정을 짓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토트넘 무기력 3연패... 손흥민에 '비난의 화살'

토트넘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3연패를 막지 못한 간판 공격수 손흥민이 현지에서 혹평을 받았다.

손흥민은 19일(현지시간) 영국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2024-2025 EPL 22라운드 에버턴과 원정 경기에서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해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뛰었다.

전반 24분 결정적 득점 기회를 놓치는 등 아쉬운 모습을 보인 손흥민은 슈팅 2회에 그쳤을 뿐 득점 등 공격포인트를 생산하지 못했다.

간판 공격수 손흥민이 침묵한 토트넘은 2-3으로 패했다.

전반에만 3골을 실점한 토트넘은 후반 2골을 따라붙었으나 끝내 승점을 챙기지 못했다. 한 골이 부족해 3연패를 당한 토트넘은 리그에서 '무승 행진'도 6경기(1무



에버턴에 2-3 패... 6경기째 무승 손, 초반 슈팅 기회 두 번 놓쳐 "기여한 게 없다" 현지서 혹평 풀타임 출전에도 공격포인트 0

5패)로 늘어났다. 리그 10경기로 범위를 넓혀봐도 1승(2무 7패)에 그쳤다.

영국 매체 풋볼런던은 부진한 손흥민에게 평점 4를 매겼다. 손흥민보다 낮은 평점을 받은 선수는 전반 3실점의 책임이 있는 센터백 라두 드레구신(평점 3)뿐이었다.

이 매체는 "손흥민은 초반에 두 차례 기회를 잡았다. 한 번은 페널티박스 안에서 망설였고, 다른 한 번은 낮게 깔아서 찔지 못했다. 한 골이 부족해 3연패를 당한 토트넘은 리그에서 '무승 행진'도 6경기(1무

평가했다. 손흥민은 전반 18분 수비 뒷공간을 공략, 페널티 지역에서 첫 슈팅 기회를 잡는 듯했다. 그러나 뒤따라온 제임스 타코우스키의 날카로운 태클에 공을 빼앗겨 고개를 숙였다.

6분 후 페널티지역 중앙으로 데안 콜루세브스키가 정확한 크로스를 공급하자 손흥민이 이번에는 이를 논스톱 슈팅으로 연결했다.

그러나 슈팅에 힘이 실리지 않아 골키퍼 픽퍼드를 넘지 못했다.

이외 아치 그레이, 벤 데이비스, 페드로 포로, 파페 사르, 제임스 매디슨도 손흥민과 함께 평점 4를 받아 저조한 활약상이 지적됐다.

반면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6.9의 평점을 매겼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7.0의 평점을 줬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6팀은 미국, 3팀은 호주로... 겨울잠 깨우는 스프링캠프

KBO 10개 구단 1차 훈련 시작... 가장 먼저 출국한 팀은 한화

겨울잠에서 깨어난 프로야구 10개 구단이 2025시즌을 향해 첫발을 내디딘다.

KBO리그 구단들은 22일부터 미국, 호주, 대만으로 출국해 스프링캠프 1차 훈련을 시작한다.

가장 먼저 출국하는 팀은 한화 이글스와 삼성 라이온즈, KIA 타이거즈다.

한화는 22일 오전 8시 1차 캠프가 열리는 호주 멜버른으로 떠난다.

한화는 호주에서 기습 훈련 위주로 전력을 다진 뒤 호주 대표팀과 연습 경기를 치르고 다음달 20일 2차 캠프가 열리는 일본 오카나와로 이동할 예정이다.

삼성 라이온즈는 22일 오전 비행기 두대로 나눠 미국령 괌으로 날아간다. 당초 삼성은 1, 2차 캠프를 모두 일본 오카나와에

서 치를 예정이었으나 박진만 감독의 요청으로 1차 캠프지를 괌으로 변경했다.

삼성이 괌에서 봄 훈련을 하는 건 2017년 이후 8년 만이다.

삼성은 2월 4일 귀국한 뒤 2월 5일 2차 캠프지 오카나와로 이동한다.

2024시즌 통합 챔피언 KIA 타이거즈 선수단 일부도 22일에 떠난다.

이범호 감독 등 코치진과 최형우, 양현종 등 선수 일부는 22일, 나머지는 23일 미국으로 향한다.

KIA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지원으로 선수단 전원이 왕복할 때 비즈니스석을 이용한다.

KIA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어바인에서 1차 훈련을 한 뒤 다음달 오카나와에서 2

차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다.

23일엔 KIA 선수단 일부와 2023시즌 우승팀 LG 트윈스 선수단이 같은 항공편을 타고 미국으로 출국한다.

LG는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1차 훈련을, 오카나와에서 2차 훈련을 한다.

SSG 랜더스는 23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를 거쳐 훈련지인 플로리다주 비로비치로 이동한다.

다만 간판타자 최정을 비롯해 김민식, 이지영, 한유섭, 김성현, 오태곤 등 6명은 본진과 떨어져 일본 가고시마에서 열리는 2군 캠프에서 따로 훈련한다. 2차 캠프지는 오카나와다.

같은 날 키움 히어로즈는 애리조나주 메사사로 떠난다. 키움은 미국에서 훈련하다가 대만 가오슝으로 이동해 2차 캠프를 소화한다.



KIA 선수단이 2024년 스프링캠프 훈련에서 워밍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엔 두산 베어스가 호주 시드니로, 롯데 자이언츠가 대만 타이난으로 출국한다. 대만에서 1차 캠프를 하는 팀은 롯데가 유일하다.

두산과 롯데는 나란히 일본 미야자키에

서 2차 캠프를 할 예정이다.

kt wiz는 26일 1차 캠프지인 호주 절통으로 이동하고, NC 다이노스는 10개 구단 중 가장 늦은 30일에 미국 애리조나주 투손으로 떠난다.

김소니아 MVP 2회 연속 쾌거

여자프로농구 부산 BNK의 김소니아(사진)가 올 시즌 4라운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로 인정받았다.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하나은행 2024-2025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4라운드 최우수선수(MVP) 기자단 투표 결과 김소니아가 총 81표 중 39표를 획득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2위 김단비(우리는행·34표)를 5표 차로 제친 김소니아는 지난 3라운드에 이어 2회 연속 라운드 MVP를 차지했다. 개인 통산으로는 네 번째다.



Back Bounce Sole

BB WEDGE

Designed by TOMARU

RC ROYAL COLLECTION

‘솔의 홈에는 이유가 있다’

클럽 장인 카즈히로는 어프로치에서 뒷땅치는 골퍼를 위해 진지하게 생각했다.

솔에 6mm의 홈을 넣음으로써 빠짐이 바뀌었다.

Back Bounce Sole, 로얄컬렉션의 'BB웨지'라면

뒷땅에도 솔이 빠져 스핀 효과가 있는 어프로치를 칠 수 있다.

프로, 아마추어 불문하고 사용자 급증 중!

www.royalcollectiongolf.co.kr